**후지 하코네 이즈 국립공원**

후지 하코네 이즈 국립공원은 ‘뛰어난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의 전신인 국립공원법이 제정된 지 불과 5년만인 1936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중 하나로 현재는 매년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으로 구성된 후지 하코네 이즈 국립공원 중에서도 수려한 후지산과 그 기슭의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 그리고 후지 5호가 자리한 후지산 구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 산책로와 역사적 유적이 다수 남아 있는 이 구역은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자녀와 함께 만끽하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경험 풍부한 등산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후지산을 오르는 여러 등산로 중 유명한 요시다구치 등산로는 후지산 북쪽 고고메(5부 능선)부터 산 정상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후지산의 완만한 끝자락에도 신사와 호텔, 그리고 후지 5호에서 순례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건물 등으로 통하는 길이 둘러져 있습니다.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이 있는가 하면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울창한 숲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탁 트인 장소를 지나는 길도 있습니다. 수목이 서식할 수 있는 경계선인 삼림한계를 따라 길 아래를 바라보면 숨이 막힐 듯한 경치가 펼쳐집니다. 길 중간에는 수세기 전 순례자들이 다녀간 것을 나타내는 비석이 곳곳에 보입니다.

해발고도가 높고 시가지에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후지산 주변의 공기는 신선하고 서늘합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후지 5호에서는 카누, SUP 보딩이나 윈드 서핑 등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호수에서는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제트스키나 그 외 엔진으로 구동되는 선박 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디에 있어도 항상 후지산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우뚝 솟아 있는데도 마치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장관을 이루는 경치 속에서 아웃도어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는 일본 내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